

# 대한제국기 안성군수 윤영렬의 토포 활동 연구

이 민 원\*

1. 머리말
2. 윤영렬의 생애와 관직 경력
3. 청일전쟁 전후 시국인식과 토포 참여
4. 안성군수 윤영렬과 대한제국기의 토포 활동
5. 맺음말

## 1. 머리말

19세기 한국 근대의 중앙 관료나 지방 관리라고 하면 어느 사이엔가 부패와 탐학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지켜내지 못한 조정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항일운동을 펼친 동학도와 의병에 대한 평가가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경향의 관리들이 평가절하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라고 하여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만 매도해 보는 시각은 재고할 점이 있다. 아울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전후 국가의 공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 전국 각지에서 횡행했던 '비적'<sup>1)</sup>들은 정부 측

\*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1) 이들 일부는 동학당이나 의병의 잔여세력 혹은 활빈당을 자처한 부류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비적'의 활동은 대체로 지방의 상인이나 보부상 약탈, 부녀자 폭행, 무덤의 도굴과 강도행위와 같은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정체는 더 고찰한 부분이 있으

이 동학도 때로는 의병까지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 주요 집단이므로 그들의 존재와 성격은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동학도나 의병을 참칭하며 횡행한 '비적'(匪賊)들은 사실상 지방민과 상인·보부상의 일상적 삶을 곤경에 빠뜨린 암적 존재로 정부 측에 인식되었다.

아울러 그 시기에 청·일·러 등의 압도적 물리력에 직면했던 조정으로서 동학도, 의병, 도적떼 등의 정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면 대책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파산지경인 국가재정에서 병력과 경비 염출이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고, 더 시급했던 것은 청·일·러의 외압에 대한 대처였기 때문이다. 저간의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동학과 의병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대일 항쟁이나 지방관리 혹은 중앙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사이의 격변기에 전국 곳곳에서 횡행한 무뢰배나 비적들의 양상, 그리고 그에 대한 관의 입장, 나아가 이 시기 전체를 바라보는 국가사의 연구는 많은 연구 과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당시의 비적들은 이 합집산이 빈번하여 동학도나 의병과의 구분도 쉽지 않지만, 어느 면에서는 이 모든 국내의 혼란이 일본의 공작에 의해 선동 혹은 증폭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sup>2)</sup>

당시에 비적들은 서울로 이어지는 충청, 경기 일원의 주요 길목과 험지를 횡행하며 상공인, 보부상 등 지역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동학도와

나, 당시 황성신문, 각사등록 등에서 파악한 '비적'의 용어를 잠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이런 이면에 대해서는 George Alexander Lensen,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and Manchuria 1884~1899*, Tallahassee :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82, pp.118~140; 한상일 역·해설, 『서울에 남겨둔 꿈-漢城之殘夢·在韓苦心錄·朝鮮時事』(건국대학교 출판부, 1993) ; H. B. Hulbert 著·申福龍 譯註, 『大韓帝國史序說』(探求堂, 1979) ; 朴鍾根 著·林英宰 譯, 『淸日戰爭과 朝鮮』(一潮閣, 1982) 등을 참조. 그 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전후 주영공사와 일본 외상 등을 지낸 林董의 回顧錄(A.M.Pooley 엮음, 申福龍·羅洪柱 譯註, 『林董(하야시 다다스)秘密回顧錄』: *The Secret Memoirs of Count Tadasu Hayashi*) (건국대학교출판부, 1989)이나 주일 영국공사 Ernest Satow의 일기(*Korea and Manchuria Between Russia and Japan 1895~1904* selected and edited with a historical introduction by George Alexander Lensen, The Diplomatic Press, Tallahassee, Florida, 1966) 등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

비적들에 대해 지방의 사족이나 보부상, 유생 등이 의병을 조직하여 대응을 보인 사례<sup>3)</sup>가 간간히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아울러 비적의 정체가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그들에 대응한 관군의 역할은 반봉건 세력이라거나 침략군인 일본군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혹은 대한제국)군도 일본군 측의 압력을 받기는 마찬가지였고, 사실상 일본군과 동학도·의병·비적들 사이에서 진퇴유곡의 처지였다. 이때 지방의 유력한 양반이나 유생, 상인이나 공인 그리고 보부상 등이 지역의 자체방어를 위해 의군(義軍)을 준비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동학도와는 달리 비적들은 이념이나 지향과는 사실상 무관한 무리배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의 존재는 청군과 일본군 출동이라는 상황에서 조야를 혼란에 빠뜨리고 동학도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관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존재로 정부 측에 인식되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조정의 명으로 지방에 파견된 무관 출신 관리로서 주목할 업적을 쌓으며 많은 이야기를 남긴 인물이 다름 아닌 경재(敬齋) 윤영렬(尹英烈, 1854~1939)이다. 그는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에 이르는 약 10년 사이에 강계, 안성, 온양, 남포, 아산, 양성, 직산, 연기 등 평안, 충청, 경기 지역의 부사, 군수 혹은 삼남 지역 집포관(緝捕官)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동학도와 의병을 참칭한 도적떼를 제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그는 현지의 주민들로부터 유덕한 지방관이자 용맹한 지역사령관의 표본으로 추앙되었다. 당시 윤영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 이들은 평안, 경기, 충청 지역의 유생, 상인, 공인, 보부상은 물론 그 지역 관찰사까지 다양했다.

그가 다른 곳으로 이임할 당시에는 현지의 백성과 유생들의 대표가 서울에까지 올라와 그의 유임을 적극 청원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3개의 군민이 동시에 그의 유임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그가 근무했던 이들 지역 곳곳에

3) 전라도 지역 동학도에 대한 유생 측 기록으로는 『錦城正義錄』, 『蘭坡遺稿』, 『鳳南日記』, 『宋沙先生文集』, 『吾南集』, 『永懷堂史輯』 등이 있고, 동학도 소멸 이후 기호지역의 '비적'(匪賊)에 대해서는 『渚上日月』, 『梅泉野錄』, 『尹致昊日記』, 『白凡逸志』, 『皇城新聞』, 『各司謄錄』 등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의 업적을 기린 송덕비와 목패, 동요 등이 등장하였으며, 그에 관한 유입 청원과 장계, 송덕비, 동요 등은 격동기의 한 목민관으로서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업적은 형이상학적 담론이나 고답적 철학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다. 현지의 백성, 특히 상공인, 보부상 등의 생업에 절실한 현안들이었다. 청군·일군이 격돌하고 동학도와 의병, 관군이 충돌하는 와중에 전국 각지에 출몰한 비적의 소탕에 주력했던 지방관의 사례가 별달리 조사, 연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 7년간 안성군수직을 장기 역임한 윤영렬의 사례는 매우 귀중하다. 본고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경기·충청 지역사의 한 단면을 안성군수 윤영렬의 활동을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 2. 윤영렬의 생애와 관직 경력

윤영렬은 해평윤씨 가문의 20세손이다.<sup>4)</sup> 해평(海平) 윤씨의 시조는 사공공(司空公) 윤군정(尹君正)으로 고려 때 인물이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sup>5)</sup>는 그의 8대조다. 윤영렬의 자는 백웅(白熊), 호는 경재(敬齋)다. 부친은 취동(取東)(자헌대부, 의정부찬정 추증)이며, 조부는 득실(得實: 자는 성보, 사후 가선대부 의정부참찬 추증)이다. 기록에 따르면 조부 득실은 원래 수원의 '화령전'<sup>6)</sup> 자리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초 나라로부터 헌납하라는 명을 받고 왕실에 헌납한 후 득실 내외와 취동 등 삼형제(教東, 祐東, 取東)가 아산의 후천리,

4) 尹鎭燮 編, 『海平尹氏 大同譜』 3(海平尹氏大同譜刊行委員會, 2005), 783~788쪽.

5) 윤두수(尹斗壽, 1533년~1601년)는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이며, 서인(西人)의 일원이다. 윤근수의 형이며, 윤보선·윤치영·윤치호의 선조이자, 윤덕영, 윤택영의 선조였다. 선조의 부마 윤신지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6) 尹氏夫人 作·柳基龍 編, 『尹相公善政錄攷』(螢雪出版社, 1983), 36~38쪽에는 화룡전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수원의 화성 내에 있는 화령전(華寧殿)이 틀림없는 듯하다.

즉 음봉면 동천리로 이사하게 되었다.<sup>7)</sup>

조부가 새 삶터를 아산에 정한 이유는 처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얘기 되기도 하지만, 지역의 입지 조건과 가문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농수산업 및 수공업 생산물의 유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기·충청 2개 도의 안성, 평택, 성환, 아산, 온양, 직산, 연기, 진천 등지는 모두 수원을 경유하여 서울로 이어지는 기호 지역 교통의 요지였다.<sup>8)</sup> 자연히 이 지역은 상인과 보부상의 왕래가 많고, 물산의 유통이 많은 곳이었다. 윤씨 가문이 이 지역에서 부를 쌓아 간 배경에는 이러한 환경이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일 윤영렬이 이 지역을 주요 무대로 선정을 펴고, 이 지역의 토착 상인들과 오가는 상인과 보부상 등을 보호하여 목민관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 것도 그러한 출생 배경과 지역 사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결부되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윤영렬은 25세의 나이에 등과하여 여러 직책을 겸임한 근대의 현관(賢官)이다. 윤영렬은 평생 술을 경계하였고, 자손들에게도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술로 인해 가세를 기울게 했던 조상의 경험을 교훈 삼아 후손에게 일종의 가훈처럼 술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던 것이다. 그는 부친대 이후 풍족해진 가세에 힘입어 넉넉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지방관으로 부임해서도 넉넉한 인정과 엄격한 비적들의 단속으로 선정을 베풀었다. 스스로는 도적의 은거지로 직접 말을 몰고 치달아 도적의 소굴을 발본색원하였다. 이런 그의 용맹과 담력, 지방민을 위한 선정은 무예에 출중한 무관의 자질로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가세가 풍족한 까닭에 토색질을 뛰어 넘을 수 있었다는 해석으로만 가능할 일은 아니었다.

이런 면모는 조카 윤치호도 그의 일기<sup>9)</sup>에서 시시로 언급하고 있다. 윤치호는 1881년 조사시찰단(신사유람단)을 따라 일본을 방문하여 유길준과 함

7) 앞의 『尹相公善政錄攷』 37쪽(東山 尹致英 博士 書札: 1983.6.16)에서 재인용.

8) 허영란, 「1910년대 경기 남부지역 상품 유통구조의 재편」(『역사문제연구』 2, 1997), 150~159쪽.

9) 국사편찬위원회 편, 『尹致昊日記』 1~11, 탐구당, 1973~1975.

계 현지에서 유학하였다. 얼마 후 조선에 부임하는 푸트 공사를 따라 미국 공사관 통역을 지냈으나 1884년 갑신정변이 발발하면서 부친은 전라도로 유배를 가서 10년 세월을 보내야 했고, 자신은 해외로 망명 겸 유학을 떠나 중국의 상해와 미국의 남부지역 기독교계 대학을 유학하고 10년 만에 사면을 받아 돌아왔다. 이를 전후로 윤치호는 자신에 관한 중요한 일은 숙부 윤영렬에게 서신을 통해 전하고 상의를 하였다. 윤영렬은 개화파의 리더격인 김옥균이나 박영효 못지않게 내외정세를 잘 이해하고 일생 그에게 훌륭한 조언을 주는 스승이자 어른이었다.

윤영렬의 생애에 대해서는 직접 집필한 자서전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내외의 격동기에 유실되어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아쉽다. 다만 윤영렬의 누이였던 윤씨부인이 동생의 지방관 재직시 남긴 업적을 한글체로 기록한 『윤상공선정록』과 그 윤씨부인에 관한 『해평윤씨부인약사』, 『尹致昊日記』, 윤영렬의 막내아들 윤치영의 기록인 『나의 이력서』, 그의 손자인 윤보선 전 대통령의 회고록(『외로운 선택의 나날』) 등 몇 가지 간접적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로서 윤영렬의 생애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미진한 감이 있지만, 여타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 일생 철학은 ‘경천 애인’(敬天愛人)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윤영렬은 1854년 아산의 둔포 새말에서 부친 윤취동과 안동김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867년 청주 한씨(한은숙)와 결혼하였다. 결혼 당시 그의 나이는 14세, 아내는 17세였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조혼이 유행하였고, 신부가 서너 살 더 많은 경우가 흔하였다. 그의 경우도 전형적인 혼례양식에 따른 결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가 무과에 급제한 것은 1878년, 그가 25세 되던 해이다. 이후 사헌부 감찰 등을 지냈고, 1883년 1월에는 6품에 올랐다는 기록도 있으나, 대체로 1884~1894년 사이에는 그다지 두드러진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개화파였던 그의 형 윤웅렬과 윤치호가 갑신정변의 여파로 근 10년 동안 귀양을 가 있거나 해외를 전전하던 상황과 일정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영렬의 역할이 세상에 차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894년부터로

특히 동학농민봉기와 관련이 있다. 즉, 천안의 전감찰 윤영렬은 동학농민봉기 당시 가축과 금전을 출연하여 관군을 도우며 장정 300명의 '의병'을 모집했다는 기록이 보이고,<sup>10)</sup> “양호도순무영에서 아뢰기를 선봉장 이규태가 ‘천안에 사는 전 감찰(前監察) 윤영렬(尹英烈)과 아산 출신 조중석(趙重錫)이 장정 300명을 모집하여 진중에 와서 명령을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격려하는 도리에서 모두 별군관(別軍官)으로 차하(差下)하여 공을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떠하올지 하니 윤희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얼마 후 양호도순무영의 상언에 따라 윤영렬은 아들 치소와 함께 별군관(別軍官)으로 임명되었다.<sup>11)</sup> 이 시기에 그는 천안에서 순무영의 별군관 겸 의병소(義兵所)의 통령(統領)으로 천안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거나 처형하기도 하였다.<sup>12)</sup>

당시 지방의 유생이나 전직 감찰 혹은 무관 등은 동학도를 비적의 일종으로 여겨 스스로 동학도로부터 지역을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군사를 조직하여 의병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는 황해도나 경상도 등지에서도 두루 확인된다. 가령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 진사의 경우가 그러했고, 『저상일월(渚上日月)』을 남긴 박씨 가문의 기록에서도 드러난다.<sup>13)</sup> 시대의 격변기에 가치관의 충돌을 보인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이나 개화파 인사였던 안태훈 진사, 경상도 지방의 양반이었던 박주대(朴周大), 그리고 전 안성군 감찰 윤영렬이나 모두 국가 사회의 현안을

10) 『承政院日記』 高宗 31年 10月 25日, 『高宗實錄』 高宗 31年 10月 25日, 『官報』 開國 503年 10月 25日.

11) “兩湖都巡撫營 啓言에 따라 300名을 召募 先鋒陣으로 來赴한 天安居 前監察 尹英烈 牙山居 出身 趙重錫을 別軍官에 差下하다.”(承政院日記, 日省錄, 高宗實錄, 官報 1894.10.27) 윤영렬(尹英烈)의 아들 유태 윤치소(尹致昭), 출신 조중석(趙重錫)을 우선 본진의 별군관으로 차출(『巡撫使呈報牒』 『叢書』 16, 310쪽).

12) 1894.11.21.(양) 순무영 별군관 겸 의병소(義兵所) 통령 윤영렬이 천안 남쪽 소거리(所巨里)에 사는 동학농민군 전 도사 김화성(金化城)·나채익(羅采益)·홍치엽(洪致擘)·이선일(李善一) 등 4명을 붙잡아 취조 후 모두 즉시 총살했고, 김화성의 아들 중칠 3형제를 정담하여 체포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천안 원거리(院巨里)에 사는 김나귀(金羅貴)·김순경(金順京)·임만진(林萬鎭) 3명을 붙잡았다(『巡撫先鋒陣膽錄』 『叢書』 13, 146~149쪽).

13) 『渚上日月』은 1835~1950년대까지 117년간 5대에 걸쳐 쓴 박씨 가문의 일기이다. 개항 이후 대한제국기까지는 2대인 나암(羅巖) 박주대가 기록하였다. 박주대가 남긴 글로 『羅巖遺稿』 및 『羅巖隨錄』이 있다.

두고 고민했을 것이지만, 시국과 조정의 상황,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리 및 동학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상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895년 봄 그는 내무참의에 임명되었고, 한 달이 채 안되어 강계부사로 발령이 났다.<sup>14)</sup> 강계지역은 자고로 민심이 사납고 외민족의 출입이 잦은 변경지역이므로 주로 무관출신이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지방의 민심을 강력히 수습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근무한 6개월여 동안 그는 단기간에 그 지역의 질서를 잡고, 현지 거주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 결과 그가 그곳을 떠나올 때 현지민들은 현지의 질서를 잡고 선정을 베푼 그를 추앙하여 이임을 만류하는 상소를 올렸다. 강계로 부임해 온 많은 지방관들이 현지에서는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방민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연안군수로 발령이 나면서 현지에서 6개월을 근무한 뒤 떠나야 했다.<sup>15)</sup>

연안군수로서 잠시 근무한 뒤 그는 마침내 안성군수 겸 삼남집포사령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1896년에서 1902년까지 약 7년간 안성군수로 근무하면서 그는 수많은 흥미진진한 일화를 후대에 남기게 된다. 이 시기에 도적의 소굴을 직접 공격, 소탕하는 과정의 각종 일화는 그 당시 황성신문, 각사등록,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일성록, 관보 등 국내의 각종 신문이나 관문서에 잘 드러나고 있고, 일제하에는 별건곤,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등의 신문 잡지에 그의 근황 소개와 함께 회고담 형식으로 흥미진진하게 소개되고 있다.<sup>16)</sup> 그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것이 1898년 전후 황성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며, 일제하에 소개된 별건곤의 기사도 정확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이 시기의 한 사례로 보인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체로 그는 당시의 시국과 세상의 민심, 그리

14) 『官報』開國 504, 3月1·3·4日.

15) 『官報』154호, 개국 504년 9월 5일, 〈敍任及辭令〉.

16) “安城郡守 尹英烈, 早識時務 久益勤勩 探訪山澤 另杜金礦之弊 遍行邑村 痛除綠林之患” (『皇城新聞』1900년 1월 22일자 『官報』) 및 뒤의 별첨 자료를 참조.

고 도적의 동태를 잘 살펴 백성의 화근을 다스렸다. 그 결과 상고물화와 여행객의 왕래를 어렵게 하는 도적의 방어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무관 출신 지방관이자, 유덕한 지방관의 표상이었다. 그는 체포된 도적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모두 가정을 뛰쳐나와 산간에 의지하여 비적활동을 한 데에는 각기 피치 못할 그만한 사연이 있게 마련이므로 가급적 흉악한 도적이 아니면, 잘 설득하고 타일러 훈방하거나 풀어준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그의 활동이 지방민과 도적들 모두에게 명성이 알려지면서 그는 당대 최고의 목민관 중 한 사람으로서 널리 인구에 더욱 회자되게 되었다.<sup>17)</sup> 흥미 있는 사례로 그가 안성군수 재직 당시 몇몇 이웃 군에 도적 떼가 발호하자 그를 초치하여 이들을 다스려 달라는 요청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3군의 백성들이 서로 자신들의 군에 머물러 있어 주기를 간청하는 사태(三郡願留)가 빚어지기도 하였다.<sup>18)</sup>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도적의 소굴을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며 공격해 들어가다가 수 십 군데 적도의 칼에 부상을 입기도 하였고, 토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의 어려움은 이같은 토포활동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때로는 서울의 경병(京兵)이 안성에서 지역민을 괴롭힌 일로 의법 조치하다가 중앙 관부와 갈등을 빚어 낙향을 하기도 하였다.

本郡守 尹英烈氏가 京兵 姜元汝等の 行悖恣을 禁戢押囚한 事로 元帥府에서 內部에 移照하고 尹郡守를 招上査質하라 하였더니 尹氏가 觀察府에 辭狀하고 因卽解印歸家한 故로 該郡民이 呼號道路라 하였더라.<sup>19)</sup>

그 외 그는 여러 지역 도적들을 동시에 다스리라는 무리한 명을 받아 부득이 사직을 하고 낙향하기도 하였다.<sup>20)</sup> 한 마디로 ‘기피지역’에 단골로 파

17) “安城郡守尹英烈廉明爲治戢盜有方隣境賴安”(『皇城新聞』, 1900년 6월 30일, <관보>).

18) 『皇城新聞』, 1901년 1월 23일, <雜報>.

19) 『皇城新聞』, 1901년 5월 13일, <雜報-解印歸家>.

20) 『皇城新聞』, 1904년 6월 15일, <雜報-三南剿捕官尹英烈氏 請免藍浦郡守之任>.

견된 무관 출신의 집포관이였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안성군수, 연기군수<sup>21)</sup>, 중추원의관, 남포군수, 육군 정위, 호서와 호남 지역의 집포관,<sup>22)</sup> 은진군수 등을 지낸 뒤, 마침내 1906년 대한제국의 육군참장에 임명되었다.<sup>23)</sup> 그러나 이때는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그의 능력을 별달리 발휘할 기회는 없었다. 결국, 1910년 나라는 망하였고 그는 영원히 관직을 떠났다. 이때 윤웅렬, 윤영렬 형제는 집의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었다.<sup>24)</sup> 이때가 57세, 이후 그는 낙향하여 유유자적하는 가운데 자손들을 가르치며 보냈다.

비록 일제하였지만 자손들은 선대로부터 쌓은 넉넉한 부를 바탕으로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익혔다. 윤영렬은 1927년 부부의 결혼 60주년 회혼식이 있었고, 이때 그는 대한제국 육군 참장의 복장을 하고 회혼식에 참석하였다.<sup>25)</sup> 신문과 잡지에서는 그의 젊은 시절 일화가 널리 소개되어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후 그는 아산군 둔포에서 노후를 정양하다가 노환으로 서울의 안국정 자택에 와서 치료하던 중 영면하였다. 이때가 1939년 11월 4일 오후 4시, 향년 86세. 장례는 7일 서울의 안국정 자택에서 거행되었다.<sup>26)</sup>

21) 『皇城新聞』〈관보〉(1902.03.07), “任燕岐五等安城郡守尹英烈”

22) 『皇城新聞』〈관보〉(1902.08.27), “燕岐郡守 尹英烈 任 中樞院議官叙奏任官五等”: (1904.03.02), “任陸軍步兵正尉 陸軍步兵副尉尹英烈(叙任及辭令)”: (1904.03.22), “任藍浦四等 陸軍正尉尹英烈”: (1904.04.04) “호서, 호남 도적 경보로 남포군수 윤영렬 등 戡捕官으로 差下”.

23) 『皇城新聞』〈관보〉(1904.06.08), “任恩津郡守 叙奏任官四等 正三品尹英烈”: (1906.09.02), “陸軍參將에 임명”.

24) 『皇城新聞』(1910.09.02), “尹雄烈 尹英烈, 집의 奴婢文券을 모아 불태우고 이들을 해방”.

25) 『中外日報』1927년 5월 15일 〈부부 회혼례〉.

26) 『東亞日報』1939년 11월 4일 관련 기사.

### 3. 청일전쟁 전후 시국인식과 토포 참여

#### 1) 청일전쟁 당시 윤영렬과 별군관 차하

청일전쟁 당시 지방에서는 동학농민군이나 비적들을 토벌하기 위해 유생이나 양반가문에서 자체의 방어와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 했던 일들이 흔히 나타나고 있었다. 『백범일지』<sup>27)</sup>에 등장하는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진사가 동학도를 토벌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킨 내용이나, 박주대 가문의 일기를 토대로 엮은 『저상일월(渚上日月)』<sup>28)</sup>, 『윤치호일기』나 『황성신문』의 기사 등이 그러한 일부 사례이다.

그들은 대체로 지방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바라던 이들로서 동학도 혹은 동학도를 참칭한 비적들로부터 지역의 방어와 함께 양반, 상인, 보부상 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움직였다. 이들은 동학도들이 흔히 징치하기 위해 표적으로 삼았던 부정하거나 탐학한 관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학농민군과는 시대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도 했지만, 흔히 동학을 참칭하여 양반과 농민, 보부상, 상인을 괴롭히는 비적들로 인해 동학도 역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류로 파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의병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윤영렬의 경우도 그랬다.

이런 상황은 청일전쟁 전후뿐이 아니라 러일전쟁 전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동학도와 의병의 경우 현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가치관의 충돌현상이 엿보인다. 물론 대한제국 말기나 일제하에는 상호 소통이 되고 합류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 가치관이나 생존 환경이 서로 달랐던 동학농민군이나 의병집단, 중앙군이나 지방관을 한쪽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양쪽의 환경이나 인식상 괴리를 인정하고 객관화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7) 김구 저·도진순 주해, 『백범일지-백범 김구 자서전』, 돌베개, 1997.

28) “11월 2일 당초에 동학은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지방의 방백수령들은 감히 그들을 처단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예천읍에서 동학군을 무찌르는데 성공한 후로는 도처에서 동학군이 패하여 마치 추풍낙엽과도 같았다.” (박성수 주해, 『저상일월』상, 서울신문사, 1993), 222~223쪽.

동학농민봉기 당시 윤영렬은 때로는 동학도 혹은 동학도를 빙자한 비도들로 인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했다. 한편, 청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지역의 유력자로서 조정과 청군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기도 하였다. 즉, 조선 측에 대한 청군의 무리한 요구와 맞물려 이미 재정이 고갈되어 난경에 처한 정부, 그리고 관의 요구에 가족을 징발당해야 하는 지방민의 궁한 처지 사이에서 윤영렬은 이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같은 사정은 윤치호의 일기에 일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일본군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소문이 청국군 진영에 이르렀다. 청국의 장수들은 조선당국에게 자신들이 목숨을 내놓은 댓가로 1백 마리의 황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런 부담을 질만한 가축 소유자들은 모두 달아나서 조선 당국이 요구에 응하기에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나의 조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조카는 나의 작은아버지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나의 작은아버지 영향력 덕분에 암소와 황소 약 70마리를 모았는데, 이들(가축주: 필자)이 내건 조건은 청국군이 소 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는 나의 작은아버지가 책임진다는 조건이었다. 청군은 소를 조달하자 크게 환호하며 곧바로 성환(成歡)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소 주인들이 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군 패배 소식이 알려졌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청군은 공주로 철수했다. 여기서도 청군은 가축을 건네받기도 전에 일본군이 신속히 접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청군은 공포에 질려 청주로 달아났고 소떼를 몰고가는 사람들도 그들을 따라 이동해야 했다. 청주로 일본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문이 있자 (그들은 다시) 충주로 달아났다. 그 사이 소 주인들은 자기 소를 청군에게 맡기고 하나씩 달아났다. 나의 작은아버지는 50마리 이상의 소 값을 치러야 했다.<sup>29)</sup>

윤영렬이 입은 이 같은 손실을 당시 조정이나 지방 관부에서 보상을 해

29) 『尹致昊日記』 1895년 3월 15일. 이 문장 뒤에는 “조선 정부가 지난 여름 노비 해방을 선언했을 때 많은 노비 주인들이 자유인들의 손에서 참을 수 없는 불명예를 겪었다.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 해방된 노비들이 이전 주인들에게 모욕을 주고 폭력을 가하면서 가마를 보내 그들의 딸과 아내를 데려오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 있다.

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우국충정의 맺가로 윤영렬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동학도가 봉기했을 때 윤영렬은 이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었을까. 『윤치호일기』에는 윤영렬이 파악한 동학의 창시와 성격, 동학도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동학도 혹은 “Oriental Relig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 전에 최(崔)(최계우: 필자)가 창안한 종교이다. 동학은 북학(北學, Northern Religion) 혹은 유교(Confucianism), 남학(南學, Southern Religion) 혹은 불교(Buddhism), 서학(西學, Western Religion) 혹은 천주교(Catholicism)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동학은 유교의 오류, 불교의 자비심, 도교의 신이(神異)와 신통력, 천주교의 신(神) 혹은 천주(天主)라는 용어를 그 속에 수용한 것이며, 동학의 선전 방식은 부지불식간에 마호메트교(Mohammedan)의 강제성을 택하였다.

하나의 종파가 탄압을 받고 (교주가) 처형당한 뒤 공공연한 반란 세력으로 변하였다. 그들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는 모르지만, 양반에게 뿌리 깊은 증오심을 보였다. 동학도가 양반들에게 행한 잔혹성은 내게 프랑스 귀족들이 혁명 중에 겪은 유혈극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 고향 집과 가족, 마을은 작은 아버지의 지혜와 인간적 매력 덕분에 청군과 일본군의 전투 중에 피해를 입지 않았고, 동학도의 보복도 면했다. 아산과 그 인근에 있던 청국군은 스스로 야만스럽게 행동하여 그들이 주둔한 지역에서 살인과 약탈, 성폭행이 만연했다.<sup>30)</sup>

한편, 윤영렬은 동학도의 반란은 처음에는 서학, 혹은 천주교에 의해 촉발되었고, 외국인 신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던 충청도 지역의 천주교도들은 동학도가 봉기하기 여러 해 전에 많은 억압과 폭력행위에 젖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아울러 당시의 조선에 대해 윤영렬은 절망이 조선의 모든 것, 가령 정부, 백성, 점처럼 박혀 있는 집들, 벌거벗은 산들에

30) 『尹致昊日記』, 1895년 2월 18일.

드리워져 있다고 어둡게 표현했다.<sup>31)</sup>

당시 곳곳에 출몰하던 비도들은 대부분 동학의 잔여세력으로 운영렬은 그들에 대해 2년 전에 적극적인 자위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저녁 늦게 둘째 사촌 동생<sup>32)</sup>으로부터 편지들을 받았다. 우리 시골집이 인근의 비도들에게 약탈을 당했고 작은아버지와 그 외 모든 사람이 피난 갈 수밖에 없었다! 비도들은 대부분 동학의 잔당으로 나의 작은아버지는 2년 전에 그들을 상대로 적극적 자위조치를 취하였다. 이 때문에 비도들이 우리 집을 특별히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였다.<sup>33)</sup>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청일전쟁의 발발 당시 윤씨 형제가 처한 곤경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기록이 보이고 있었던바, 주로 청국군과 동학농민군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운영렬이 현지에서 목도한 청군의 인상은 어떠했나.

① 아산과 그 지역 인근에 있던 청국군은 스스로 야만스럽게 행동해서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는 살인과 약탈과 성폭행이 만연했다.<sup>34)</sup>

② 작은아버지 말에 따르면, 예장군(General Yeh)(葉志超: 역주)과 쉘장군(General Seh)(聶士成: 역주)의 휘하에 있는 청국 군인들은 매우 난폭하게 아주 새로운 형태의 가장 낮은 범죄를 행하였다. 강도질, 약탈, 그리고 성폭행 외에 그들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군인 하나가 참외밭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익은 참외를 따는 대신 익었건 안 익었건 닥치는 대로 참외를 찢러댔다. 더욱 나빴던 것은 참외 덩굴을 잡아 당겨 단지 못된 짓 하는 재미

31) 『尹致昊日記』 4, 1895년 2월 19일.

32) 작은 아버지는 운영렬, 운영렬에게는 치오(1869~1949), 치소(1871~1944), 치성, 치병, 치명, 치영 등의 아들이 있었다. 따라서 둘째 사촌 동생이란 치소를 말함.

33) 『尹致昊日記』 4, 1895년 2월 19일.

34) 『尹致昊日記』, 1895년 2월 18일.

로 발 전체를 영망으로 만들었다. 그 장군들은 일본군이 천자 군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범위 내로 온다면,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 고 그 불쌍한 조선인들에게 호언장담하였다.<sup>35)</sup>

이상에서 보듯이 윤영렬은 청군에 대해서는 무질서하고, 민폐를 많이 끼치는 군대로,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교활하며 가난하고 무지한 조선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산 지역에서 ‘의병’ 혹은 ‘충군’을 표방하여 행동하는 무리를 지방민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비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윤치호일기의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나의 작은아버지와 사촌동생들이 지방에서 무사히 올라왔다. 그들이 무사하니 주께 감사한다. 작은아버지는 만일 정부가 그들을 일반 강도로 간주하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 동네와 집을 비도들로부터 손쉽게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병 그리고 충군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은 비도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sup>36)</sup>

한편 그의 일본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나.

일본의 차관은 3백만 엔 중 1/2은 은화로, 나머지 1/2은 지폐로 한 불리한 조건으로 결정이 났다. 일본 정부의 께께함이 경멸스럽다. 이곳의 일본 대표는 가난하고 무망하고 도둑의 손길이 없는 조선에 대해 얼마나 교활한 장난을 그들이 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그 치사한 차관에 대해서 미국인들에게 얘기를 할 만큼 뻔뻔하진 못하다.……수일 전에 탁지부 대신에게 서신을 써서 상인이나 장인들에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쓸모없는 관리들을 해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 현명하다는 것 등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sup>37)</sup>

35) 『尹致昊日記』 4, 1895년 3월 11일.

36) 『尹致昊日記』 4, 1895년 3월 15일.

37) 『尹致昊日記』 4, 1895년 3월 31일.

한편, 위와 같은 청·일군의 충돌과 동학도의 봉기를 틈타 전국에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본 또 하나의 부류는 신분제 해체의 와중에 보복을 행하던 일부 노비출신들의 행태였다.

조선 정부가 지난 여름 노비 해방을 선언했을 때 많은 노비 주인들이 자유인들의 손에서 참을 수 없는 불명예를 겪었다.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 해방된 노비들이 이전 주인들에게 모욕을 주고 폭행하면서 그들에게 가마를 보내 그들의 딸과 아내를 데려오라고 강요했다.<sup>38)</sup>

바로 이런 난국에 아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윤영렬의 부자는 지역 현지의 질서 유지와 자체 가산의 방어 차원에서 '비도'로 판단한 집단의 진압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양호 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에서 아뢰기를, “방금 선봉장(先鋒將) 이규태(李圭泰)의 치보(馳報)를 보니, ‘천안(天安)에 사는 전 감찰(前監察) 윤영렬(尹英烈)과 아산(牙山)에 사는 출신(出身) 조중석(趙重錫)이 장정 300명을 모집하여 진(陣) 중에 와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격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별군관(別軍官)으로 차하하여 공로를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sup>39)</sup>

이후 양호도순무영의 계언(啓言)에 따라 300명을 모집하여 선봉진(先鋒陣)으로 온 천안의 전감찰 윤영렬과 아산 출신 조중석이 별군관(別軍官)에 임명되었고,<sup>40)</sup> 곧이어 윤영렬의 아들 유학 치소(致昭)도 별군관으로 차출되어 부자가 함께 동학도의 진압에 참여하게 되었다.<sup>41)</sup> 이것으로 보아 잠시나마 윤영렬은 동학농민봉기의 끝무렵에 동학도 혹은 동학도를 참칭한

38) 『尹致昊日記』 4, 1895년 3월 11일.

39) 『高宗實錄』 1894년 10월 27일.

40) 『承政院日記』 1894년 10월 27일 및 『官報』 1894년 10월 27일 기사.

41) 「巡撫使呈報牒」(『叢書』 16, 310쪽, 1894년 11월 18일)

부류들을 진압하는데 자진하여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제압이 되면서 소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의 사태는 삼국간섭, 을미사변, 단발령, 아관파천 등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아울러 동학을 표방한 집단의 활동은 점차 소멸되어 갔지만, 전국 산간의 험지에는 '비적'들이 등장하여 활개치게 된다. 이들의 정체는 동학도, 의사동학도, 활빈당, 비적 등 다양할 것이나, 비적에 가까운 무뢰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2)</sup>

## 2) 강계부사 윤영렬과 지방민의 유입청원

윤영렬이 지방관으로서 대활약을 한 것은 주로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 사이이다. 이 시기 중 근 7년간은 안성군수로서 근무할 당시이며, 그 외 기간에 강계부사(1895), 연기군수(1902), 남포군수(1904), 은진군수(1904) 등을 역임했고, 그 사이에 증추원의관, 육군보병정위, 집포관, 육군참장, 정2품 등으로 임명 혹은 승품하였다.

당시와 현재 안성에는 현지민들이 세운 공적비가 두루 있고, 실록이나 관보 등에도 그에 관한 기사가 빈번히 등장한다. 그는 안성 뿐만이 아니라 직산, 강계, 연기, 남포, 은진 등 경기 충청 지역의 목민관으로서 현지민들에게 널리 추앙되고 있었다.

이같은 윤영렬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윤씨부인이 기록한 『윤상공선정록』에 잘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카인 윤치호의 일기에서도 윤영렬의 인물됨과 치적이 종종 소개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가령 청일전쟁 전후 그가 부임하여 근무했던 여러 지역의 현지민들이 올린 「원류(願留)」, 「등장(等狀)」, 「송덕문(頌德文)」, 「동요(童謠)」, 「비문(碑文)」, 「통문(通文)」 등은 『윤상공선정록』에서 잘 확인되며, 일부는 『조선왕조실록』, 『승

42) 이들의 부류 및 성격에 대해서는 楊尙弦 編, 『韓國近代政治史研究』(사계절출판사, 1985)에 실린 糟谷憲一의 글(초기 의병운동의 사회적 기반과 전개과정), 朴贊勝의 글(활빈당의 활동과 그 성격) 및 하우봉 외, 『매천 황현과 역사 서술』(디자인호름, 2011)의 박맹수의 글(매천 황현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등을 참조.

정원일기』, 『관보』, 『각사등록』 등의 정부기록이나 궁중 내외의 상황과 열국 외교관의 움직임을 자세히 기록한 『윤치호일기』, 그 외 『황성신문』, 『별건곤』 등의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도 흥미진진하게 엿볼 수 있다.

이들 기록을 살펴볼 때 그가 주목되는 활약을 한 것은 1895년 이후~1904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시기이다. 청일전쟁 이후 윤영렬은 지방관으로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 삼국간섭 등이 이어지고, 대내적으로는 동학농민봉기,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이 이어지던 때이다. 전국 각지에 도적과 무뢰배들이 동학도와 의병의 무리를 참칭하며 횡행하였고, 각 지역 양반과 보부상, 상공인들의 피해가 심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 지방관으로 파견되어 비도들을 제압하고, 지방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같은 윤영렬의 관직 활동이 잘 드러나는 것은 40대에 접어든 이후이다. 일제하의 신문과 잡지 등 일부기록에 20대의 활약상으로 소개된 것들은 좀 더 정확한 고증을 요한다. 아울러 윤씨부인이 남긴 선정록에 의하면 윤영렬은 40세가 되던 1893년 그에게 내부참의라는 3품직이 내려지면서 평안도의 도호부였던 강계부사(江界府使) 겸 방어사<sup>43)</sup>(防禦使) 직에 등용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도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하다. 윤영렬이 강계부사로 가게 된 것은 분명 2년 뒤인 1895년이고, 그 직전에는 내무참의(1895), 별군관(1894), 별군관 겸 의병소 통령(別軍官兼義兵所統領, 1894), 천안군 전 감찰(天安郡前監察)(1894) 등의 기록이 『관보(官報)』 혹은 『각사등록(各司謄錄)』 등에 보일 뿐이다.

윤영렬은 유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인물이었다. 그가 처음 지방관으로서 가게 된 곳은 강계지역이었다. 강계지역은 교통과 군사면에서 평안도의 요충이었다. 아산의 신행리에서 임지인 강계까지는 근 일천오백여리나 떨어진 길이었다. 그곳이 변경지역이다 보니 인심도 사납고 외적으로부터 현지

43) 윤씨부인이 남긴 선정록에는 윤영렬이 40세가 되던 1893년 그에게 내부참의라는 3품직이 내려지면서 평안도 도호부였던 강계부사(江界府使) 겸 방어사(防禦使) 직에 등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아일보 기록을 유추해도 그러하다. 그러나 각사등록과 실록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2년 뒤인 1895년으로 확인된다.

민들은 물론 지방관의 피해가 빈번한 곳이었다. 동기간이었던 누이(윤씨부인)는 곤경이라고는 별로 느껴보지 못하고 자란 동생이 과연 강계부사의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근심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후 들려오는 소식은 우려와는 달리 동생이 지방을 잘 다스리는 어진 관리(賢官)로서 그리고 지역의 도적과 무리배를 물리치고 대도(大道)를 실현하는 맹장(猛將)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누이는 '차차 도입한 후로 들리는 말이 그곳 백성들의 비문과 동요와 원류하리는 글을 보니 과연 즐겁고, 내 사사로운 정으로 칭송함이 아니라 진서(眞書)를 번역하니 동생의 출중한 뜻을 귀하고 사모하여 보노라'고 기록하고 있다.<sup>44)</sup>

당시 강계지역의 형편은 청나라의 만주족이 자주 국경을 넘어와 노략질을 하던 때였다. 윤영렬은 이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대책을 세우면서도 그들을 간곡히 깨우쳐 그들 만주족들이 감복하게 하였다고 한다. 마적의 우두머리인 '마건충'(馬建忠)이 직접 윤영렬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대의 진실된 백성 구제와 우국충정을 알게 된 지금 이후 절대로 재범하지 않겠노라"고 전하고 마적들을 퇴거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그의 선정으로 인해 그 지역 백성들로부터 인망이 높아지면서 그는 강계부사 겸 방어사의 임기를 마치고도 백성들의 요청 때문에 유임을 면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후 그는 다시 황해도 의연부사로 임명을 받았으나, 관직에 뜻하는 바가 없어 단호히 이를 고사하고 귀향한 것으로도 전한다.<sup>45)</sup>

윤영렬이 강계에 근무할 당시 지방민의 평가와 관련된 기록으로 7건의 자료가 보인다. 즉, ①<윤태수 송덕문(頌德文)>, ②<관찰사의 제사(題辭)>(A), ③<강계 백성의 등장(等狀)>, ④<관찰사의 제사>(B) ⑤<강계 백성의 동요(童謠)>, ⑥<강계의 비문(碑文)>, ⑦<어사의 포제(褒題)>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윤태수의 송덕문>은 윤태수의 선정과 덕을 찬양하며 유입하

44) 앞의 『尹相公善政錄攷』, 43쪽.

45) 위의 『尹相公善政錄攷』, 44쪽. 일설에는 왕무충(王武忠)이라고도 전한다. (尹致暎, 『尹致暎의 20世紀』, 삼성출판사, 1991, 16쪽.)

기를 청한 내용이며, <관찰사의 제사>(A)는 위의 요청에 대하여 평안도 관찰사가 조정에 이를 올리겠다는 답변 내용이다. <강계백성의 등장>은 강계 지역의 백성들이 윤태수가 장기 유입하기를 호소하는 내용이고, <관찰사의 제사>(B)는 백성들의 윤태수 장기 유입 청원에 대해 평안도 관찰사가 그의 선정에 감동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외 <강계백성의 동요>는 그 지경 사람들이 윤태수의 선정과 치적을 노래로 지어 불렀던 내용이며, <강계의 비문>은 윤태수가 청백리로서 각종 폐단을 근절하고 도적의 침해를 방지해 주었다는 치적을 담고 있고, <어사의 포제>는 윤태수가 출중한 지혜와 선정으로 민심을 감복시켰다는 내용을 평안도 어사가 작성한 것이다.<sup>46)</sup> 이렇게 지역민의 등장, 송덕문, 동요, 비문 외에도 관찰사의 제사, 어사의 포제까지 이어진 경우는 일부 과대 평가된 점이 있다해도 흔한 사례는 아니다.

## 4. 안성군수 윤영렬과 대한제국기 토포 활동

### 1) 안성군수 시절의 비적 토벌과 선정비

윤영렬이 안성군수로 재직할 당시 이룩한 업적은 안성 상인들이 작성한 통문과 비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왜 안성군수로서의 활약이 두드러졌을까. 거기에는 그 지역의 물산과 교통 등이 중앙 및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일정한 연관이 있었다.

1893년도 일본영사관에서는 경기 및 충청 지방의 상업권을 4개의 권역으로 분석하였다. 즉, 1권역(한강 상류 지역/경기도 및 충청도), 2권역(금강 지역/충청도), 3권역(서해안 지역/충청도), 4권역(안성, 수원 지역/경기 남부)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1~3권역은 수운(江運 및 海運)을 이용하여 발달한 곳이고, 4권역인 안성, 수원은 이들 지역과 달리 육운(陸運)이 중심이

46) 이상에 대해서는 앞의 『尹相公善政錄攷』, 61쪽, 82~98쪽을 참조.

다. 이들 지역은 서울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규모 화물집산지는 드물지만, 서울 이남의 경기도에서 상업이 가장 번성한 곳이 장호원, 안성, 수원이었다. 이중에서도 안성장은 조선의 3대 시장 가운데 하나로 지칭할 정도로 유명한 대시장이었다.<sup>47)</sup>

경기도 안성군은 험한 고개와 관문을 낀 요새로 역대의 군수는 주로 무관 출신을 임명하였다. 안성이란 경기도 동남단에 있는 대표적 도시이며, 예로부터 미곡과 유기 등의 생산 및 제조업 발달로 유명하며, 3남에서 굴지의 무역, 공업 시장이므로 그곳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했다. 그 외에 교통으로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일부로서 서울로 통하는 길목(咽喉之地)이므로 봄가을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각종 미곡과 물품이 이 지역을 거쳐 갔다. 이런 관계로 안성, 죽산, 진천, 음성이라는 곳은 불한당(강도단) 많기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이런 사정은 윤영렬이 안성군수로 부임한 이래 제일 먼저 보고하고 착수한 일이 비도의 방비를 위한 군사 훈련과 이를 위한 물자와 경비 마련이었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sup>48)</sup>

이중에서도 비도의 근거지로 유명한 곳이 옥정이고개였다. 그곳은 경기도 동쪽, 충청도 북쪽에 위치한 불한당의 총본영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안성군수는 호반(武官)이 많이 담당하여 왔고, 약간의 관병이나 포교(捕校) 정도로는 정복은커녕 도리어 도적들에게 포위되어 도망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 지역의 도적떼는 조정 당국자들의 큰 두통거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난제를 해결하여 안성의 상인이나 보부상들을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준 인물이 바로 안성군수 윤영렬이었다. 그 당시 <안성 보부상의 통문><sup>49)</sup>에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다.

47) 허영란, 「1910년대 경기 남부지역 상품 유통구조의 재편」 (『역사문제연구』 2, 1997), 150~164쪽.

48) <군사요충지인 안성의 방위에 대한 대책 보고 및 이에 대한 지령> (安城郡守 尹英烈 建陽元年六月二十七日,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9) 『尹相公善政錄攷』, 129~131쪽.

서울로 통하는 이 땅은 우리 앉은 장사(坐商)와 다니는 장사(裸負商)가 재물을 팔고 이익을 남기어 생업을 평안히 하여 산다. 이것은 누구의 덕택인가. 우리 안성군수 윤공의 혜택을 입어 그러한 것이다. 왜 그런가.

옛적에 윤공이 오시기 전에는 도적의 무리가 당을 지어 각 군에 별떼 같이 일어나 길거리마다 개미떼같이 모여 큰 저자와 큰 길가에서 대낮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 뺏기를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어서 사농공상이 함께 그 피해를 입어 살 수가 없었다. 그 중 가장 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사람 다니는 길이 끊어지고 시장이 비어서 앉아서도 물건을 팔 수가 없고 다니면서도 재물을 통하게 할 수 없었는데, 갑오년 동학의 난리 후와 병신년 의병의 난리가 발생할 때 우리 안성 사도 윤공이 부임하여 이 안성을 단단히 다져 놓아 동학과 의병을 참칭하는 무리들을 제어하신 후로 각 도 각 군을 순찰한 지가 이미 다섯 해이다.

이런 까닭에 도적들이 자취를 감추어 백성들이 생업을 편안히 하여 사농공상(士農工商)이 윤공의 덕택을 안 입은 이가 없다. 과거에 도적에게 해를 심하게 입은 우리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날 윤공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입었다. 부럽고도 아름다운 일이 본 군으로부터 다른 도 다른 읍까지도 윤공의 덕택 입은 백성들이 감복하지 않는 이가 없어 사람들이 입으로 덕을 찬양하고 길이 비를 세우자 기원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안성 상공인의 비문>과 1900년 10월 27일 발문(發文)으로 되어 있는 <안성 상인의 통문>에서도 잘 나타난다.<sup>50)</sup> 그 외에도 그의 업적은 <안성 선비의 통문>, <안성 백성의 등장>, <내부대신의 제사>, <윤태수의 사임 취지>, <관찰사의 제사>, <안성 백성의 비문>, <안성 상인의 통문>, <직산 선비의 통문>, <양성 백성의 통문>, <아산의 통문>, <온양백성의 통문> 등 총 20여 건의 내용<sup>51)</sup>에서 잘 드러난다. 즉, 지방관으로서 운영령의 선정과 비적 토벌, 그로 인해 상공인들과 보부상, 그리고 지방민들의 생업이 보전되게 되었음을 감사한다는 내용들이다. 그야말

50) 『尹相公善政錄攷』, 129~133쪽.

51) 『尹相公善政錄攷』, 79~133쪽.

로 오늘날 충청남도과 경기도를 아우른 여러 지역에서 그의 토포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지방민들이 감사하면서 목비를 세우거나 선정비를 세우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지방민이 선정비를 세우는 일로 금전을 거둘 것을 예상하여 누차 각지에 전령을 보내 선정비 건립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엄칙을 내리기도 하였다. 아울러 비석을 세우기 전에 지방민, 교공선비, 상공인, 농민 등이 안성, 온양, 직산, 양성 등지에 목비(木碑) 세운 것을 발견되는 대로 뽑아내 자택의 광속에 감추어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에 관한 내용은 이미 『윤상공선정록고』에도 잘 소개되어 있어 구체적 소개는 생략한다.<sup>52)</sup>

종래 지방민들이 세운 선정비나 통문 등은 지방관들의 요구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등장한 ‘눈물비’라거나 ‘통문’이라는 주장도 흔히 있었다. 그러나 윤영렬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방관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송덕비가 적지 않았다. 윤영렬의 경우 이같은 사실은 당시의 『관보』, 『각사등록』, 『황성신문』, 『별건곤』 등을 통해서도 넉넉히 확인할 수 있다. 종래 부정적으로만 보고 외면하기 일쑤였던 전국 각 지역의 선정비들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몇몇 지방관의 일탈 행위로 인해 선정을 베푼 지방관들의 업적을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5백년 조선왕조가 유지된 데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정을 펴던 지방관들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보아진다.

그 외 특기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다. 먼저, 그는 지방에서 신식군대를 조련하면서 군가를 직접 보급했다. 지방에서 토포 활동을 하고 선정을 펴는 데는 이를 뒷받침하는 병력이 필요했고, 사기도 진작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병영을 설치하여 신식군대를 조련하였고, 군사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군가 수십 편을 직접 지어 보급토록 했다. 삼남집포관직을 수행할 당시 영문(營門)은 아산의 둔포면 신항리 본가에 위치했다.<sup>53)</sup> 둘째, 그는 집포 활동을 하면서도 체포된 비적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가급

52) 『尹相公善政錄放』, 60~62쪽 참조.

53)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적 덕담과 교화를 통해 설복시킨 뒤 조용히 방면해 주어 새 삶을 찾으려 하였다.<sup>54)</sup> 윤치호가 그의 작은아버지의 인간적 매력과 기민함 덕분에 청군과 일본군의 충돌 와중에 '동학도'로부터 고향 집이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sup>55)</sup>고 기록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 2) 「옥정이고개」 대활극 이야기

### (1) 『황성신문』에 소개된 윤영렬의 마중군 토벌

윤영렬의 안성군수 재직 당시 활동상은 1898년 후반기 이후부터 빈번히 등장한다.

1898년 11월 29일자 잡보(入穴捉虎)에는 화적떼인 마중군 일당 100여 명이 양지군 화산월동 등지로 출몰하면서 일반 유생과 여자들을 구차하고 재물을 탈취하자 안성군수 윤영렬이 병정 6명 순포 4명을 인솔하고 가서 직접 이들을 진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음력 10월 초 8일에 화적 마중군(馬中軍) 무리 백여 명이 양지군(陽智郡) 화산월동(花山月洞) 등지로 다니면서 사녀(士女)를 구타하고 재물을 탈취하니 안성군수 윤영렬씨가 이 보도를 듣고 쫓아가 체포하고자 병정 6명과 순포(巡捕) 4명을 이끌고 왔다가 이날 밤 월동 고개에서 그 무리를 마주하게 되니, 이곳은 구불구불한 험곡이라. 줄지에 큰 적을 마주침에 진퇴무로한 가운데 적의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저기 오는 말 탄 자가 필시 안성군수일 것이니 속히 나아가 공격하라 하는 소리가 산곡을 울려 퍼지는지라, 윤군수가 병정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그대들을 몇 년 동안 양성한 것은 이런 때 쓰려한 것이다. 내 뒤를 따르라 하고 칼을 빼어 달려나가 적을 공격하니 그 칼날에 죽은 자가 3명이고 자신도 수십 군데 찢린지라. 적들이 대적하지 못하고 창을 버리고 달아났다더라.<sup>56)</sup>

54) 『尹相公善政錄攷』, 24쪽. 45~46쪽.

55) 『尹致昊日記』, 1895년 2월 18일.

56) 『皇城新聞』〈雜報〉, 大韓 光武 二年 十一月 二十九日.

한편 1898년 12월 2일자 **의** 잡보에는 마적(馬賊)이 윤영렬을 지목하여 내건 격문(馬賊投檄)이 보인다.

(마적의 격문) 안성군의 파수병과 순검, 이속배들은 같이 열어 보라. 다른 게 아니라 근래 들건대 호랑이 없는 산에서 여우가 호랑이 행세한다더니……혹간한 들을 잡아 놓고 감히 스스로 어깨를 으쓱이며 큰 소리 치기를 언필칭 마중군당(馬中軍黨)이라 하니, 가소롭다. 오늘날의 마중군은 옛날의 손자와 오자서와 같은 인물인데, 어찌 너희들과 같을 수 있나. 그러나 내가 들건대, 이곳군수 윤영렬이 담략이 조금 있고, 지혜와 덕을 겸비했다 하니, 한번 죽산(竹山)의 오봉산맥(五峰山脈)에서 상대 도전하여 승부를 겨루어 봄이 어떠한가. 날짜는 금월 15일 달 밝은 밤으로 행할지어다. 내게 건장한 부하 8천이 있으니, 그대의 젓비린내 나는 50명 군사를 어찌 께념이나 하겠느냐. 무술(戊戌) 10월 13일 달 밝은 밤 격서(檄書). 대한대장군(大韓大將軍) 마(馬).<sup>57)</sup>

한편, 이에 대해 윤영렬이 격문으로 답하는 기사(『答馬漢揭榜書』)까지도 같은 신문 기사에 흥미진진하게 등장한다.

(마씨놈 방문에 답하노라) 애석하다, 너 마씨놈아, 내말 잘 들어라. 너희 역시 우리 대한 황상이 기르시는 백성일진대, 혹여 상할까 걱정하시는 황상의 덕을 돌아보지 않고, 감히 관리를 겁박하고 금전을 약탈하는 못된 마음을 품으면서 무리를 불러 모아 깊은 곳에 은거하며, 때로 험한 길목을 근거지 삼아 마을의 부유한 집을 들이쳐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탈취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을 밤낮으로 추포하려한 지 오래되었으나 흩어졌다 다시 무리를 지으니, 소재를 몰라 아직 두목을 잡지 못해 마음이 늘 울적하였는데, 비로소 잡아들일 기회를 맞았노라. 감히 스스로 방을 걸어 방자하게도 나와 승부를 겨루고자 한다니, 네가 청하지 않아도 오히려 잡으려 하거늘, 하물며 네가 자청하는 데어야. 네가 소위 8천의 장졸이라 한 것은 나의 6, 7명 정예병이면 간단히 쓸어버릴 수 있는데 무슨 의심이 있고, 무엇

57) 『皇城新聞』, 〈雜報〉, 1898년 12월 2일.

을 꺼리겠느냐. 기회를 타서 나아갈 것이니, 흠어져 도망가지 말고 서서 나를 기다려 승부를 겨룬다면, 오히려 가히 진짜 남자라 하겠다.<sup>58)</sup>

지방의 험곡을 끼고 웅거한 도적이 그 지역의 수령에게 도전장을 보내 호언할 정도였으니 청일전쟁 이후 지방의 치안과 질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후 기록(『황성신문』의 <잡보>, 1898.12.05)을 살펴보면, 안성군수 윤영렬이 내부와 군부에 각기 순교들의 복장과 군장, 그리고 총기 40자루를 요청하였고, 이를 내부와 군부에서 각기 내려보냈다는 기사가 보인다.<sup>59)</sup>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899년 1월 29일자 『황성신문』에는 윤영렬이 도적 토벌에 위험을 꺼리지 않으니 사방이 조용하고 백성이 광산에서 채굴하는 일을 하게 되니 수많은 이들이 칭송했다고 보도하고 있다.<sup>60)</sup> 그 외 1901년 2월 6일자의 관보(官報) 기사에는 ‘안성군수 윤영렬이 녹림지환(綠林之患)을 시원하게 다스리니 인근의 여러 군이 편안해지고 그 지역 모두가 칭송함’이라 하였다.<sup>61)</sup>

이들 기사 중 1898년의 입혈착호(入穴捉虎)라는 기사는 일제하의 잡지, 『별건곤』에 다시 등장한다. 즉 다음에 소개하는 ‘옥정이고개의 대활극’(玉政時大活劇)은 이야기의 내용이나 전개구도로 보아 1898년 윤영렬이 안성군수로 근무할 당시의 이야기로 추측된다.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니 76세 당시의 윤영렬이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사를 쓴 기자가 20대의 이야기와 함께 뒤섞여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윤영렬의 이같은 비적 토벌 활동은 안성군수 당시는 물론 1902년 이후 연기군수, 남포군수 겸 집포관, 은진군수 등을 지낸 당시에도 이들 지역과 용인 등지에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58) “峇馬漢揭榜書”(『皇城新聞』, 「雜報」, 1898년 12월 2일)

59) 『皇城新聞』, 「雜報」, 1898.12.05.

60) 『皇城新聞』, 「雜報」, 1899년 1월 29일.

61) 『皇城新聞』 1898년~1902년 사이의 잡보 혹은 관보 기록 참조.

(2) 『별건곤』에 비친 윤영렬-옥정이고개의 대활극<sup>62)</sup>

일제하에 발간된 잡지 『별건곤』 21호(1929.06.23)에는 청장년 당시 윤영렬의 무용담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전한다. 근대 안성지역의 일반적 상황과 이 지역을 근거로 횡행하던 도적 떼를 윤영렬이 진압하던 단면을 흥미있게 소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그가 살던 안국동의 저택(당시에는 둘째 아들 윤치소가 거주)과 근황도 언급하고 있다.<sup>63)</sup>

경성 종로 네거리에서 북부로 치다라서 안국동 네거리 당도하거든 동쪽으로 내다라서 別宮 동편 담을 끼고 다시 북으로 북으로만 곳장 올라가고 보면 왼편으로 안국동 예배당이 웃둑 솟아 있다. 그 예배당에서 바로 마준편으로 宏傑한 큰 대문집이 닥쳐온다……이 집의 老主人 公尹英烈翁은 지금 와서는 朝鮮안에서 두 사람도 엮는 大福之人으로 (壽富貴多子孫) 세상 사람의 欽慕의 관역이 되어 있으며 재작년에는 거액의 자금을 드려서 회혼례를 엮이나 굉장 백은 하게 치두웠든지 일본신문에서는 조선의 松方正義라고 한참동안이나 떠드러 땀다. 이러케 팔자 조흔 大福之人이지만 그의 靑少 시대에는 矢石이 雨下하는 戰場에서 劒戟이 閃閃한 살육장에서 남의 격겨내기 어려운 위험과 고난을 치루워 온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이처럼 『별건곤』에서는 1929년 당시 윤영렬이 유명한 ‘포도대장’으로 알려져 있었고, 조선에서 둘도 없는 ‘대복지인’(大福之人: 壽富貴多子孫)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가 1927년 부인과 결혼 후 60주년을 맞아 회혼례(回婚禮)를 성대하게 치를 당시 일본의 신문에서는 조선의 마쓰가타(松方正義)<sup>64)</sup>라고 호들갑을 떨 정도였다.

62) 龜石山人, 「괴팍코 살맹이 뛰노는 現存 壯士 靑春時代의 冒險談, 不汗黨巢窟을 一鞭에 掃蕩한 飛虎將軍의 神威勇略, -安城郡守時代의 尹英烈翁」 (『별건곤』 21, 1929.06.23)

63) 그의 안국동 저택이란 오늘날 ‘윤보선 전대통령의 가옥’으로 지정되어 있는 집이다. 1929년 당시의 주인은 윤치소(尹致昭)였다. (『별건곤』 제21호, 1929년 06월 23일)

64) 근대 일본에서 대장대신, 총리대신을 지낸 인물. 그의 손녀 사위가 에드윈 라이샤워이다. 손녀(아라이 라이샤워)가 쓴 책이 *Samurai and Silk*이다. 이 책의 주인공이 마쓰가타 마사요시와 아라이의 외조부(新井領一郎)이다. (Haru Matsukaata Reischauer, *Samurai and Silk: A Japanese and American Heritag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그러나 그가 이렇게 복록을 누리게 된 것은 호협했던 청장년 시절 화살과 돌이 나르는 전장과 창칼이 번뜩이는 살륙장에서 많은 위험과 고난을 치르며, 아산, 안성, 남포, 연기 등지를 위시한 경기도와 충청도의 여러 지역 군수와 집포관으로 활약하면서 현지 지방민과 상인들을 보호해 주고 선정을 베푼 공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일화 중 별건곤에서 흥미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옥정이고개'(玉政峙)의 대활극 이야기이다.<sup>65)</sup>

【옥정이고개의 대활극(玉政峙大活劇)】<sup>66)</sup>

안성이란 경기도 동남단에 있는 웅주(雄洲)이며, 예로부터 미곡과 유기(鑪器) 등의 생산 제조업의 발달로 유명하여, 3남에서 굴지의 무역, 공업 시장이므로 거주민의 생활이 풍요했다. 그 외에 교통으로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일부로서 서울로 통하는 길목(咽喉之地)이므로 봄가을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각종 미곡과 물품이 이 지역을 거쳐 가면서 충청북도 진천(鎭川)과의 접경지에 있는 '옥정이고개'(玉政峙)를 넘게 된다. 이런 관계로 안성, 죽산, 진천, 음성이라는 곳은 불한당(강도단) 많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 중 옥정이고개처럼 도적이 많은 곳은 없을 것이다. 옥정이고개라는 데는 동경기 북충청의 불한당 총본영이었다.

그러므로 안성군수는 호반(武官)이 많이 담당하여 왔지만, 약간의 관병이나 포교(捕校) 정도로는 정복은커녕 도리어 도적들에게 포위되어 도망하는 추태를 연출한 것이 상례였으니, 당국자들의 큰 두통거리였다. 그리다가 윤영렬이 25세의 약관으로 안성군수의 인수(印授)를 차고 득의양양하게 안성 경내로 말고삐를 추스르며 호기있게 부임했다. 그는 물론 안성이 불한당의 총본

University Press, 1986)

- 65) 龜石山人, 「피끌고 살뎡이 뛰노는 現存 壯士 青春時代의 冒險談, 不汗黨巢窟을 一鞭에 掃蕩한 飛虎將軍의 神威勇略 -安城郡守時代의 尹英烈翁-」 (『별건곤』 제21호, 1929년 06월 23일)
- 66) 별건곤에서 옥정이고개는 옥정치(玉政峙)라고 했으나, 오늘날의 옥정(玉井) 고개이다. 전 통시대에는 안성에서 진천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현재는 302번 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나 차량 왕래가 한산하다.

영인 줄도 알고 갔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 어떠한 확고(確乎不拔)한 결심이 있었는지, 부임 후 3일 만에 장교, 포교, 사령 등의 점검을 마친 후 그날로부터 주야로 군사교련에 열심히 매진하였다. (중략)

그의 행진(行陣) 형세는 대번에 바로 총본영(總本營)인 옥정이고개를 꼭 짚러 파헤쳐 버리려는 군용(軍容)이자 계획이므로 먼저 밀정을 보내어 산세를 두루 살피고 또 피해한 양민(良民)과 포로가 되었던 촌민(村民)을 향도관(嚮導官)으로 앞장을 세우고 옥정이고개(玉政峙)의 주위 40리를 10중이나 포위해 놓고 손수 선봉이 되어 적굴(賊窟)을 돌격하는 지라. 장교 중 한 사람이 “귀중하신 몸을 돌보아 선봉을 피하시라”고 충고해 보았으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잡으랴”(不入虎穴, 安得虎子)하고 소리치면서 그냥 그 기세로 단기로 말을 달려 습격을 시험하였다. (중략)

그의 칼 창 번득이는 곳에 도적의 머리(首級)가 굴글러 떨어지고 그의 말머리 돌리는 곳에 양민을 해하는 적이 두려워 떨면서 항복(戰慄懼伏)하였다. 그 험준한 산계곡이지만, 위아래 동서로 창검과 시석(矢石)이 오가며 피바람이 이는 것(醒風血雨)을 무릅쓰고 수백 합 대격전을 치른 후 도적들이란 워낙 훈련이 없는 오합지졸들이지라 깃발을 말아들고 창과 칼을 거꾸로 잡고 그만 36계에 출행량을 놓았지만, 장교와 포교의 이중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자가 누구이랴? 도적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포승에 묶였다. 이렇게 하여 사갈(蛇蝎)같고 시랑(豺狼)같은 불한당! 양민으로 하여금 위협, 박분(剝奮), 살육, 멸문의 각종 불안공포를 끼쳐주던 흉도악당의 총본산만은 비호장군의 채찍 한 번(一鞭之下)에 소탕되고 말았다.

『별건곤』에서는 이런 활약상이 20대의 혈기방장한 때라고 했으나 필자가 여러 자료를 추적해 본 결과로는 주로 40대 전반기의 이야기로 확인된다.<sup>67)</sup> 어쨌든 이상과 같은 윤영렬의 활약상은 안성군수 시절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듣기에는 흥미진진하지만, 현지에서 토포 활동을 전개하는 지방관으로서의 목숨을 걸고 시도해야 할 일들이었다. 비적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작전의 수립, 그리고 인력과 물자의 뒷받침 속에서 적당한 시기를

67) 『별건곤』에 나타나는 이같은 활약상은 1898년~1902년 사이의 여러 기록, 가령 『황성신문』, 『관보』, 『각사등록』 등에 두루 엿보이나, 분량 관계상 구체적인 소개는 생략한다.

선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들이었을 것이다.

### 3) 연기군수 이후 및 육군참장의 회상

안성군수로 약 7년간 재직한 윤영렬은 1902년 연기군수(燕岐郡守)로 떠나게 된다. 그가 안성군수직을 떠나게 되자, 안성의 백성 '1만여 명'이 길을 막고 부임하지 못하게 하고 수십 명은 상경하여 내부에 원류장(願留狀)을 올리기도 하였다.<sup>68)</sup>

이후 윤영렬은 1902년 8월 중추원의관(칙임관 5등)으로 임명되었으며, 1904년 3월 육군보병 부위에서 정위로 승진하였다. 얼마 후 남포군수(藍浦郡守) 겸 삼남집포관(三南緝捕官)으로 임명받았는데,<sup>69)</sup> 남포군수로 재직하면서 삼남집포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건강상으로는 업무추진상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자신이 두 가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한 가지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청을 하여 가까스로 남포군수직을 면제받았다.<sup>70)</sup>

그러나 얼마 후 다시 조정으로부터 은진군수를 겸임하라는 명이 내려졌고, 삼남집포관직을 겸하여 수행하며 토포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에 상소를 올려 종전에 남포군수직과 집포관을 하명받아 두 가지 일이 서로 방해되어 청원을 올린 결과 다행히 남포군수직을 덜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은진군수직을 하명받으니 앞으로 집포(戡捕) 활동에 크게 방해되니 군수직을 덜어달라는 상소를 재차 올리기가까지 하였다.<sup>71)</sup>

68) “安城郡守尹英烈氏가燕岐郡守로 移任한 後에 安城民萬餘名은 遮路하여 不得赴任케 하고 數十名은 上京하여 內部에 願留狀을 呈하얏더라(皇城新聞 (『官報』, 「敍任及辭令」, 1902년 3월 10일; 『皇城新聞』, 1902년 3월 20일, 「雜報-安民願留」)

69) 『官報』, 「敍任及辭令」, 1902년 9월 3일 및 1904년 3월 2일.

70) “藍浦郡守尹英烈氏가戡捕官兼任한 後에 屢次內部에 請願하되 本職이 戡捕之任을 擔當하얏슨則邑務를 不可兼視오니 郡守之任은奏免하랴하얏다더니 昨日內部에서依願免하얏더라.”(『皇城新聞』 1904.05.07, 「雜報-藍倅依免」).

71) “請免郡任 三南剿捕官尹英烈氏가 昨日內部에 請願하되 藍浦郡守之任을 向蒙하와 吏職與戡捕가 其務兩妨故로 屢度請願하와 幸蒙依免이옵더니 今又以恩津郡守之任을 至蒙奏裁하와 揭于官報하오니 從前辭免은 歸于文具하고 由後戡捕는 亦爲妨務오니 恩津之任은 奏免伏望이라하얏다.”(『皇城新聞』, 「雜報」, “三南剿捕官尹英烈氏 請免藍浦郡守之任”, 1904년 06월 15일)

이후 그는 1906년 6월 제칙(制勅)으로 특별히 육군보병 정령(正領)에 오르고, 같은 해 9월 육군참장(陸軍參將)에 올랐다. 그러나 1907년 통감부예의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면서 그는 육군참장의 옷을 벗게 되었다.

1907년 이후 그의 활동은 대한제국기의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에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1908년 1월 105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조직된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국권 회복의 길은 교육 진흥과 산업 발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초대 간부에 이용직(회장), 이후 윤영렬, 김윤식, 홍필주가 역대 기호흥학회 회장을 지냈다.<sup>72)</sup> 당시의 애국계몽 단체로는 대한자강회(회장 윤치호)<sup>73)</sup>와 그 뒤를 이은 대한협회가 중심이었고, 기호흥학회는 지역 단체 중 하나였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교육운동 단체를 표방하였다.<sup>74)</sup> 국권회복과 학문의 발전, 대중의 일깨움을 목적으로 했으며, '대한제국의 독립기초와 이천만민의 자유정신과 기호 삼성(三省)의 흥학(興學)주의'를 창간 취지로 삼았다.<sup>75)</sup> 그러나 1910년에 일본의 한국 병탄과 함께 각종 단체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기호흥학회도 해체되었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하는 비극이 연출되는 가운데 그는 형(윤영렬)과 함께 집안의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이들을 해방하였다. 바로 그해 총독부 측은 대한제국의 여러 고위 공직자들에게 작위를 부여하였고, 형에게도 그러했다. 그러나 그다음 해 총독부 측은 <105인 사건>을 날조하였다. 조카 윤

72) 지석영(부회장), 정영택(총무)이었다. 평의원은 유성준, 석진형, 이상재, 윤효정, 장현식, 정교, 장도, 유근, 유일선 등이었다.

73) 대한자강회는 1906년 4월 서울에서 조직되었다. 회장은 윤치호, 그 외 장지연(張志淵)·윤효정(尹孝定)·심의성(沈宜性)·임진수(林珍洙)·김상범(金相範) 등 20여 명이 주요 멤버였다. 국민교육을 고양하고 식산(殖産)을 증진해 장차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였으나 국채보상운동 이후 통감부의 탄압을 받아 1907년 8월 해산되었다. (李鉉淙, 「大韓自強會月報·大韓自強會에 대해」(『震檀學報』 29·30, 1966); 權熙英, 「大韓自強會의 社會思想과 民族運動」(『海軍第二士官學校論文集』 2, 1980))

74) 기관지로 『畿湖興學會月報』를 발행하였고, 이해조(李海朝)가 편집을 맡았다. 『畿湖興學會月報』는 1908년 8월 25일 창간, 1909년 7월 25일 통권 12호를 끝으로 강제 폐간당했다.

75) 1909년 5월 25일자 『畿湖興學會月報』 제10호의 <會計員報告>에는 의친왕, 윤영렬과 함께 윤영렬, 이시영, 영선군 등이 매월의 의연금을 낸 기록이 보인다.

치호를 주모자로 몰아 혹독한 고문을 가하고 투옥하였다. 72세의 형 윤영렬이 이때 타계하였고, 전 과정을 지켜보던 윤영렬은 조용히 향리에 은거하였다. 이후 윤영렬에 관한 회고담은 무용담 형식으로 신문, 잡지에 간간이 등장한다. 1927년 자손들이 안국정자택에서 열린 회혼례(回婚禮) 이야기도 그중 하나이다. 이때 74세의 노인 윤영렬은 30년 전 벗어 놓은 대한제국 육군참장의 복장을 하고 하객 앞에 나타났다. 현장에는 일본인도 있었다. 불과 수백 미터가 안 되는 곳에 총독부청사가 있었고, 총독이 삼천리 강산을 살벌하게 통치하던 때였다. 전 대한제국의 명군수이자 육군참장이었던 윤영렬, 망국의 장군 제복을 시위해 보인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 5. 맺음말

어느 시대나 내외의 격동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취약할 때는 의적(義賊)도 등장하지만, 대부분 무뢰배나 도적들이 출몰하여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 결과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공업 분야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의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일반의 생업까지 도탄에 빠지게 한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내외가 격변하던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국에서도 그 점 유사했다. 혼란한 정국을 틈타 도처에서 동학이나 의병을 참칭한 도적 떼가 횡행하여 지방의 양반이나 농민, 상인, 공인 등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굴총(掘塚), 방화를 일삼았고, 심지어는 인명 살상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 난세에 지방관 혹은 군인으로서 조정의 명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고심하고, 국가사회의 장래를 우려하며 지방민과 상인 보호에 주력한 이들이 적지 않게 있다.

윤영렬(1854~1939)은 그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다. 그는 무관출신으로서 조선왕조 말 및 대한제국기에 강계부사와 안성군수, 삼남집포관 등 주로 지방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말년에는 대한제국의 육군참장을 지냈다.

그러나 그가 안성군수직을 근 7년간 역임하였듯이 그의 관직 생활 대부분은 주로 도적 출몰이 빈번한 '기피지역' 지방관 역할이었다. 자연히 목숨을 담보로 수행할 일이 적지 않았고, 비적들을 소탕하다가 피습되어 생사의 기로에 선 경우가 적지 않았고, 때로는 중앙에서 내려온 군사와 순검 등의 작폐를 제어하느라 골머리를 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그런 활약에 의해 안성과 인근 지역의 상인, 보부상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보호를 받게 된 것도 사실이다. 남아 있는 안성 등지의 선정비나, 당대의 신문과 관기록, 개인기록 등에서 그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sup>76)</sup>

현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부용산)에 소재한 윤영렬의 묘소는 인근에 위치한 그의 선대의 묘소, 그리고 경기도·충청도 등에 산재한 그의 선정비와 함께 근대의 지역사 연구와 역사문화 탐방 소재로서 상당한 가치가 엿보인다. 그와 선조들의 산소가 명당이라고 하는 풍수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으나, 그 자체도 사실은 윤영렬의 선조와 형제들 그리고 후손들이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에서 파생한 후광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그를 축으로 한 선대와 후대의 인물들이 엮어간 삶과 경험은 지난 세기에 한국 굴지의 명문가로 발돋움한 한 가문의 역사는 물론, 조선-대한제국-(일제하)-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근현대 격동기의 한 단면이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주요한 소재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삼남집포관으로서 혹은 지방의 군수로서 수행한 두드러진 업적, 비적의 소탕과정에서 보인 위험하고도 극적인 활약, 중앙군과 순검들의 불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앙 관부의 압력을 받아 고뇌하는 모습, 난세

76) 윤영렬과 그의 후손들 중에는 지난 1백년의 한국사에서 학문, 의료계, 정치, 외교, 군사,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많다. 그래서 지난 1백여 년 사이에 발돋움한 한국 최고의 명가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그의 후손 중에는 일제하에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국내에서 관료나 의사, 학자를 지낸 인물도 많이 있다. 윤보선, 윤치영, 윤일선 등이 그 중 일부 인물들이다. 8·15 해방 이후로도 그의 후손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이후의 정치·군사·교육·외교·의료·과학·예술 분야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사가 적지 않다. 일부 '애국'과 '친일'의 경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인물이 있으나, 상당수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깊이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다면적인 해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에 의지할 데 없는 지방민과 상인, 보부상의 추앙을 받는 목민관으로서의 지역 현장에서 겪었던 각종 사건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사의 연구는 물론, 오늘날로서는 중앙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지방관 혹은 지역 사령관 등의 존재와 역할에 관한 의미 있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소재임이 틀림없다. 앞으로 다른 지방관의 유사한 사례가 다양하게 조사,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사례가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 지방사의 또 다른 한 측면에 대한 조명은 물론, 경기·충청 지역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역사회의 문화자산 개발을 위한 사례로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sup>77)</sup>

(원고투고일 : 2011. 12. 28, 심사수정일 : 2012. 2. 10, 게재확정일 : 2012. 2. 21)

주제어 : 윤영렬, 안성군수, 비적, 동학농민군, 대한제국, 부부상, 경기도, 목민관, 화적떼, 대한제국 육군참장

77) 당시 충청, 경기 지역 비적들의 굴종사건이나 양반가에 대한 침탈, 부녀자에 대한 횡포, 비적들의 실체, 동학이나 의병과의 구분 문제, 선정록을 남긴 윤씨부인 등에 관해서는 지면 관계상 후고를 기약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of Anseong County Magistrate (安城郡守)  
Yun Yeong-ryeol (尹英烈) during the Korean Empire  
-focusing on his activity for the suppression of bandits-

Lee, Min-won

*Yun Yeong-ryeol* was one of the most famous officials and military officers during the Korean Empire. He was of noble birth.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re were so many gangs of bandits in Korea. They attacked *yangbans*, peddlers, shop keepers and plundered local villages. Even though they disguised the *Donghak* Peasants Army or the Righteous Army, Korean Government thought most of them were really bandits who plundered local people of their property and disturbed the order of society. What they did was attacking, harrasing merchants, peasants, *yangbans* and women in the local area. Sometimes they pillaged *yangbans'* tombs of grave goods and traded their ancestor's remains.

*Anseong* was a very famous county for business and goods in traditional society of *Gyeonggi* Province in Korea. It was also a very important traffic area of *Gyeonggi* Province near Seoul. This surroundings made *Anseong* attractive and cream area to the bandits and gangsters. Sino-Japanese War and weak government of Korea let them active in the local area. People couldn't survive bandits' attack and plunder. They asked government remove the gangsters from *Anseong*.

*Yun Yeongryeol* worked 7 years as the *Anseonggunsu* (*Anseong* Magistrate) and commander for suppression of bandits of 3 provinces including *Chungcheong* and *Gyeonggi* Province. He did good job and was heartily praised by the local people. People raised stone or wooden monuments for memory of his good government. There remains 4 stone

monuments for the memory of him in the central park of *Anseong* City. It was not the result of misgovernment and harass to the people, but the real good government and sacrifice of himself during the turbulent times of lat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Key Words : Yun Yeong-ryeol, Anseong County Magistrate, Bandit, The Donghak Peasants Army, Korean Empire, Peddler, Aristocrats, Gyeonggi Province, Grave Robbery, Lieutenant General of the Korean Empire